

철저한 승리

여호수아 10:15-27

김양재 목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

채팅에 빠진 여고생이 있습니다.

그 애가 맨처음부터 채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러브호텔 앞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오늘 어떤 동네에서 내가 아버지를 봤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당황하면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고 돌려댔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그날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엄마에게는 하고 싶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더 화가 나고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바보 같고, 아버지는 용서가 안 되고, 모든 것에 짜증이 나면서 인터넷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 오면 마루에 있기 보다는 방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채팅 방에 들어가서 외도를 하는 심리가 무엇일까 아저씨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점차 사람이 싫어지고, 특별히 남자가 너무 싫어지고, 학교 생활도 재미가 없고, 학교에 가서도 남자 선생님들은 다 아버지와 똑같은 중년 남성으로 보였기 때문에 짜증이 올라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료검색을 하다, 채팅을 하다 점점 늦잠을 자는 날이 많아졌고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고, 특히 사랑은 믿을 수 없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누군가와 만나서 나눠야 겠는데 나누고 싶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게시판에, 대상이 없는 채팅 공간에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날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공감이 잘 되는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자라는 것이 안심이 됐고, 유사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언니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같이 현실을 싸잡아서 욕하고 비난하면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 언니와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나누다가 학교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 언니와 정기적인 채팅을 하면서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고, 보름만에 학교를 아예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그 부모들은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너무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결과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된 언니와 채팅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동성애에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고생은 외도를 하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사랑을 부정하고, 그래서 여성들만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생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치료센터에

왔는데 그 센터를 방문한 이후에 도리어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간신히 찾아와서 정신과 약이라도 먹여야 겠다고 병원에 가고 약을 지었지만, 그 다음 날에도 아이는 가출을 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아이를 찾은 부모는 결국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그후로 아이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부 우리가 외로운 상태에서, 어디에다 말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빠집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외로워 질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단절 될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채팅밖에 없습니다.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권해야 할까요. 그 외로운 마음과,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부모가 모르는 겁니다. 서로 다 숨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속을 다 숨기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모든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도 아버지, 어머니의 죄, 그리고 이어지는 자녀의 죄를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철저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죄에는 공개된 죄가 있고,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부터 보면 아간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폭로되고 공개적인 처벌을 받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재봉도 공개적인 처벌을 받았고, 부모를 죽인 이은석도 공개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절도, 살인, 험담, 중상, 자랑, 술취함, 원한, 질투... 이런 것 중에 한 가지 만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죄를 제해버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숨겨진 죄를 다루려고 합니다.

철저한 승리를 위해서 첫째, 끝없이 숨겨지는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개된 죄보다 더 제하기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렵고, 오픈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순종, 자만심, 이기심, 악한 생각, 의심... 이런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연민과 위선 등의 죄도 숨겨진 죄에 속합니다. 어떻게 숨기니까. 착함으로, 혹은 의로움으로 숨깁니다. 이런 반대의 행동으로 나의 죄를 숨길 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15절 -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지난 시간에 100% 응답받는 기도를 했습니다. 해도 달도 멈추게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서 해도 달도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길갈 예배로, 길갈 교회로, 길갈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 길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6절 -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막게다는 예루살렘 남서쪽 32km 지점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도 달도 멈추고 이 전쟁에서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다섯 왕이 숨을 곳을 딱 발견했습니다. 다섯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예와 쾌락과 물질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섯 왕인데, 그것들을 물리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돈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숨을 곳이 딱 생긴 겁니다. 환경이 되니까 물어도 안 보고 도망가다가 숨습니다.

우리가 길이 안 돼서 못 숨지, 길이 되면 이렇게 숨는 겁니다. 사채를 내서라도 마지막 망할 때까지 가는 것이 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다섯 왕의 특징입니다. 망한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끝까지 숨어보자, 가보자, 부모가 망해도 좋다, 형이 망해도 좋다, 끝까지 가보자...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모든 것들이 숨었습니다.

17절 -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누가 알려줬습니다.

저 사람이 뭐를 숨겼다고 일렀습니다. 택한 자라면 내가 먼저 숨은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감추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공개적으로 오픈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 누군가에게 자백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두 사람에게라도 괜찮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비밀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고 우리를 감정적으로 속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점점 그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나면 그 신비가 벗겨지고 힘을 잃게 되는데도 중독은 개인의 약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을 털어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독자는 '저에게 이 중독은 너무 영향력을 발휘해서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중독에 패배했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중독자들은 다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문제를 모른척 합니다. 참으로 중독이라는 것, 숨기고 싶은 것들에서 혼자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독자가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은 '문제는 무슨 문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그래, 그것이 나쁜 습관이라는 건 알지만 나는 언제든지 그걸 버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적인 로맨스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이건 건강하지 못한 관계지, 당장에 끝내버려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밤이 찾아오면 강박적인 충동이 되살아나서 보고싶어지고, 전화하고,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면 이용당했다는 느낌 속에서 눈을 뜨며 자신을 증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걸 알지만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이러는 것이 중독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독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중독은 생각보다 큰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주식 중독.. 모든 중독이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갱생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마지막 열두 단계에서 취하는 방법은 '보다 더 큰 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독치료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힘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목장 모임에서, 주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혼자 할 수 있구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독자입니다. 중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든 '나는 언제라도 해결할 수 있고, 오늘이라도 끊을 수 있어' 이러는 사람은 중독자입니다. '여보, 나는 못 끊겠어, 정말 도움이 필요해' 이러는 사람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에게도 속이고, 남편에게도 속이고,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중증 중독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들 중증 중독을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화려해 보였던 아모리의 다섯 왕들은 자신들이 거스린 군대와 장비들을 보면서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다섯 왕이 연합을 했으니까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을 시작해보니까 인내도 없고, 들은 말씀도 없고, 큰 교회, 사대 재 모태신앙... 소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막상 문제가 일어나니까, 남편이 바람이 부도 나고,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자식이 가출을 하고, 암에 걸렸는데 아무 것도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화려했던 경력과 집과 자동차로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자식들, 부하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기에 급급해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다섯 왕, 잘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숨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면 자식이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만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부도가 나도 숨어버립니다. 인간이 참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대적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나의 대적 마귀를 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아모리 다섯 왕의 걸모습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놀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일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피아노 실기 시험입니다. 실기 시험을 칠 때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 앞에서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모릅니다. 두근두근 떨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험을 많이 쳤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피아노를 해서 실기시험을 치고, 그 시험 쳐서 대학 입시를 보고, 대학에 가서도 계속 실기시험을 쳤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떨렸겠습니까.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니까 떨리는 겁니다. 대학교 입시와 직결이 돼 있고, 나중에 취업과 직결이 되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날마다 떨리는 겁니다. 날마다 특하면 우는 사람도 다 분해서 우는 겁니다. 제가 우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람 몇 사람 앞에서 그렇게 떨리겠습니까. 지금은 구름 때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인터넷 설교 방송이 나가는데 몇 천 명이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떨리는가. 긴장은 하지만 이것은 나의 이해타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 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긴장하는 것은 있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설교하라고 해 보십시오.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월급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못합니다. 나와서 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두려운 것은 항상 욕심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도 다 나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죄도 처리하고, 숨겨진 죄도 처리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팎의 죄를 불뭇에 던져 넣으실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기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처리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주십니까.

두 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들으십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 위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을 어떻게 주십니까.

'주님, 내가 이 속에 숨겨진 죄를 내놓기 원합니다, 정말 처리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내 숨겨진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시편 139편 23~2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숨겨진 악이 공개된 자리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드러내지 못하니까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우선 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18~19절 -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 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다섯 왕이 숨은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굴 어귀를 막아서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시하는가 보니 '남은 적군들을 가서 물리치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전쟁, 아이 전쟁 겪다 보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하는 지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다섯 왕이 숨었다고 하면 부하 장병들 앞에서 내가 이 다섯 왕을 물리쳤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 이런 다섯 명이 우리들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가서 복음제시만 하면 영접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빨리 찾아가세요' 이러면 제가 으시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들보다는 남은 적군을 먼저 물리쳐라, 결국 여호수아는 사단의 모든 것을 알고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왕은 나중에 죽이고, 졸병들을 먼저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왕은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왕이라고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어느 때는 두목부터 쳐야 되고, 어느 때는 졸개부터 쳐야 되는 것이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는 이 두목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이니까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뒤에도 그 이유가 나옵니다.

21절 -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러면 내 대적을 남겨두지 말고 치고 나가야 하는데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겨두니까 혀를 놀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부하, 남은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을 전도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부터 찾아가서 전도할 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고, 빛진 자 한 영혼은 대통령 한 영혼과 똑같은 영혼입니다. 일년 내내 환난 당하고 빛진 자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들의 모든 비방 거리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성 목회자입니다. 얼마나 비방할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나라가 500년 제사 문화, 여성 비하 문화에 익숙한 유교 사회입니다. 1600여년 불교 문화, 500년 유교 문화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지 120년 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비방 받고, 조롱 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계속 오라고 하니깐 비방 거리가 자꾸 줄어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틀렸어, 집안이 틀렸어, 교회가 틀렸어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혀를 놀려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맨날 왕들하고 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왕들은 좀 숨겨두고 내 할 일부터 하십시오.

제가 주제를 잘 압니다. 제가 높은 사람하고 놀면 얼마나 놀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주제를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주제를 아는 사람, 제가 여자이니깐 여자로서 주제를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 성도들도 보내주십니다. 특히 청년들이 모이기 어려운 이 때에, 몇 천 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들이 모이기 어려운데 우리들교회에는 왜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어서 "말씀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왕보다는 군졸들을 전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히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동창회 가서 내 친구들 전도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면 비방을 덜 받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일은 다 쓸데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핍박받는다고 '핍박 증후군'에 속해도 안 됩니다. 제가 꼭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성이라서 핍박해.. 우리들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핍박을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핍박합니다. 그런 열등감의 소치인 소리는 할수록 무시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목에 힘을 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주제를 알고 걸어가면 됩니다.

혀를 놀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잘못인가, 의의 핍박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철저한 승리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여기에 가서 하면 실수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여기에 가서 하면 실수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가서는 실수가 되고, 저기에 가서는 실수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도와주는 건 선이지만 저기 가서 도와주는 건 악일 수 있습니다.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급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우선 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목표로 놓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철저하게 승리하려면 실제로 삶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24절 -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시편 110편 1절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원수의 목을 발로 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교를 해도, 집안에서도 살아있는 교육을 해야 교회도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은밀한 죄는 거둬거둬 우리를 미혹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발 아래 놓고 밟아야 합니다. 다섯 왕은 굴욕을 당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망해도 도망가서 숨을 때를 찾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처음 피웠을 때는 찾아가서 모두에게 알리는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굴욕을 당해야 딱 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야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에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가서 난리를 피워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걸 또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절대로 피울 사람이 아닌 사람이 피웠을 경우에는 한 번 가서 난리를 치는 것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왕이 발로 밟히는 굴욕을 당하면 빨리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발로 밟을 수도 있는데 전쟁에 참가했던 군장들을 불러서 밟으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직접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교육과 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네가 직접 발로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자녀교육도 부모가 하는 부분이 있고 자녀 스스로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들교회 저 혼자 전도합니다. 우리들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저절로 되는 분들입니다.

이론 뿐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목상과 적용입니다.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 무서운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낳는다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 처녀 마리아가 아이 밴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래, 예수님도 그렇게 낳아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집도 이 낳아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큐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교회는 살아있는 목 밟기가 매 주일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엄두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자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아직도~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나와서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들교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목 밟기 적용입니다. 직접 해보니까 그 적용을 할만하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용기

를 뱉습니다. 멀리서 어떻게 밟습니까. 가까이 가서 밟아야지요. 멀리서 적용합니까. 내가 가서 밟아야지, 내가 적용을 해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하는 것 아무리 봐도 내가 가서 해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목 밟기 적용을 하니깐 나도 할 수 있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가서 적용을 해보라고 여호수아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멀리서 말고, 가까이 가서 밟으라는 겁니다. 목을 밟는데 멀리서는 도저히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아모리 왕들이 죽은 왕도 아니고, 너무 대단한 다섯 왕이 살아서 숨어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서 어떻게 밟겠습니까. 적용을 한 번 하려면 두렵고, 떨리고, 자존심, 체면 다 걸려서 절대 못합니다. '아휴.. 주여.. 저 절대로 못해요' 이립니다.

25절 -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래서 당장 이어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는 두려워요, 죽었닥 깨어나도 그 적용 못해요' 끔찍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와서 아직도 여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서 절대로 못합니다. 돈을 뿌리치고, 명예를 뿌리치고, 쾌락을 뿌리치고, 자존심을 뿌리치는 그 적용을 절대로 못합니다. 땅끝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들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은 못합니다. 끝까지 숨는 것밖에 못합니다.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숨는 것밖에 못합니다.

아모리 왕의 최후는 그래서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길이 많아서 숨는 것밖에 못합니다. 돈으로 숨고, 자연으로 숨고, 학연으로 숨고.. 다 숨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 이렇게 목 밟기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대로 두었다가

죽인 왕을 나무에 매어달고 선포하는 것이 목장 나눔입니다. 우리의 숨겨졌던 죄는 저주받은 자리, 십자가에서 처형돼야 합니다. 주일마다 처형돼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나의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내 죄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처형돼야 합니다. 저주 받은 자리, 목 밟기로 처형돼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해결이 안되니까 천안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하던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지난 주에 돌아왔습니다. 가출했다가 자기 발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나가고 나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디 가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부터 우리들교회에 와서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다 돌아오니깐 다들 내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애들이 나가는 게 여반장이죠. 안 그럴습니까.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그걸 다 숨기느라 바쁩니다. 그렇게 막게다 굴에 숨으시면 치료가 안 됩니다.

내가 목 밍기를 통해서 나무에 매어달고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의 죄를 대신해 달리셨습니다.

그랬다가

27절 -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렇게 내가 매달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기억도 되지 않게 소멸 되어집니다. 굴 속으로 영원히 던져집니다. 죄가 죽음에 넘기워지면 그 다음에는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픈하고 나서는 '내가 오픈했더니 다들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죄가 처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최계원 전도사님이 나와서 목 밍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이야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적용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한 번 오픈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도 안하고 도말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임과는 절대 다른 것입니다. 영원히 굴에 던져 넣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아서 오늘날까지 있더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죽음에 넘기어지지 않은 죄는 계속 타락과 심취의 길로 인도합니다. 죽음에 한 번 넘겨진 죄, 죽을 것 같은데 내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매달면 그 다음에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후로 계속 승리의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지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이겼습니다.

죄와의 전쟁은 이렇게 이겨가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죄를 내어쫓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내어쫓아야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백은 했는데 아직도 굴에 끼고 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내어쫓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목 밍기 적용을 했어도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26절) 했습니다. 군장들이 다섯 왕의 목을 밍기도 진짜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적용했다고 하루 아침에 다 죽입니다. 최계원 전도사님이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것을 적용의 재료로 삼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 전도사님이 자기가 적용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것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목장 모임에 가서도 그래서 또 대롱대롱 매달렸다고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면 제가 또 옆에서 더 죽여주는 겁니다. 진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해석하는 것이 죄를 이겨가는 방법입니다.

28절 -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어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진멸"의 원어가 '헤렘'인데 아간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도 헤렘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21가지 죄의 목록으로 인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멸, 헤렘의 종지부가 예수님입니다. 헤렘 사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7장부터 쪽 보면 죄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헤렘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죄의 실체는 탐욕입니다. 아간의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야 장사가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장사 잘 한다고 장사가 잘 됩니까. 상대(商大) 나오면 장사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교회도 안 되고, 장사도 못하는 것입니다. 안 보내주시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 또 뭔가를 훔쳐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죄의 실체, 탐욕을 알아야 합니다.

또 죄의 진행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 왕들은 숨었다가 죽었습니다. 멸망-포로에서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면 눈물을 흘리면서 앞드려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내가 앞드릴 때 하나님의 X-Ray가 나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 속의 더러운 오장육부를 다 비춰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돈이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입니다. 오장육부가 보입니다. 이것이 해결 과정입니다.

해결의 결과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이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을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마3:8~10) 눈물 흘리고 내 죄를 알았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여호수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심각함을 알고 해결의 결과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승리를 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목상을 해야 하고, 적용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어떤 목 밝기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나의 끝없이 숨겨지는, 막게다 굴의 아모리 다섯 왕의 죄,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숨기고 싶고 죽어도 말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중독이라는 걸 아십시오.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기를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삶에서 목 밝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나는 친구 중독이라고 적용을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정말 인생이 힘들다고, 가정이 좋은 줄 알았더니 잘못 된 것을 알았다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를 원한다고 목 밝기 적용을 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새 이상하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중독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이야기 한 채팅에 빠진 여고생의 부모도 너무나 교양있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의 외도 한 번, 러브 호텔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평생이 망했습니다. 중독이 됐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가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해야 딸하고 대화가 될텐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서 모든 것을 숨기고 인격적으로만 대해주고, 먹을 것을 사주면 해결이 됩니까. 목을 밝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미봉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X-Ray로 투시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철저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만 보리라(미3:8)고 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날마다 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은 부부간의 전쟁, 교회간의 전쟁, 나라간의 전쟁 모두가 죄와의 전쟁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모르는데 잠시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와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끝없이 숨겨지는, 내가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숨겨지는 아모리 왕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한다고, 처형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을 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시시해보여도 군졸부터 죽일 때 허를 돌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 주제를 알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모리 다섯 왕 좋아하다가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밀의 사람부터 보살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삶에서 목 밝기 적용을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지만 내가 중독에 걸렸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터넷 중독, 술 중독, 여자 중독, 동성애 중독에 걸렸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달라고, 목 밝기 적용을 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모리 다섯 왕이 환경이 되기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숨지 못하지만 환경이 되니 이렇게 금새 숨는 이런 모습이 왜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낮아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주님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길이 없도록 막아주셔서 숨지 않도록,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십시오.

아모리 왕의 입장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군졸의 입장에서 다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적용하기 원하고, 또한 다섯 왕은 그냥 두고 군졸들을 쳐죽이라 할 때에 나에게 왜 그렇게 형편없는 일을 시키는가가 아니라 힘든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나에게 대하여 혀를 돌려 비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옆에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아모리 다섯 왕의 목도 밝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내 주제를 알게 하십시오.

목 밝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들 때문에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목 밝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중독의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는 중독에 걸렸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독에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목을 밝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형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도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